

전남 어린이 교통사고 전국 1위 불명예

최근 3년 보행중 사망 10명·부상 846명...인구대비 전국 평균 2.3배 광주 42곳·전남 41곳 2명이상 사상자 발생...절반이상 시설개선 안돼

#. 광양 중동 무등파크 정문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최근 3년(2013~2015년) 동안 6건의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상도 4명에 달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가 허용되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인 곳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황색 도색을 통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지방경찰청을 통해 수집·분석한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실태조사 결과'(2013~2015년)에 따르면 전남의 어린이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국평균(0.7명)의 2.3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이어 세종(1.5명), 충북·경북·경남(1.1명), 강원(1명) 순으로,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어린이인구 10만 명당 보행교통사고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상자수는

자수(111.4명)도 전국에서 제주(159.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평균(80.9명)보다 30.5명이나 많은 수치다. 광주는 97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전남의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사망자는 10명, 부상자수는 846명이다.

같은 기간 광주와 전남에서 어린이 보행사망사고 또는 2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지점은 각각 42곳, 41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 28곳, 전남 22곳은 아직까지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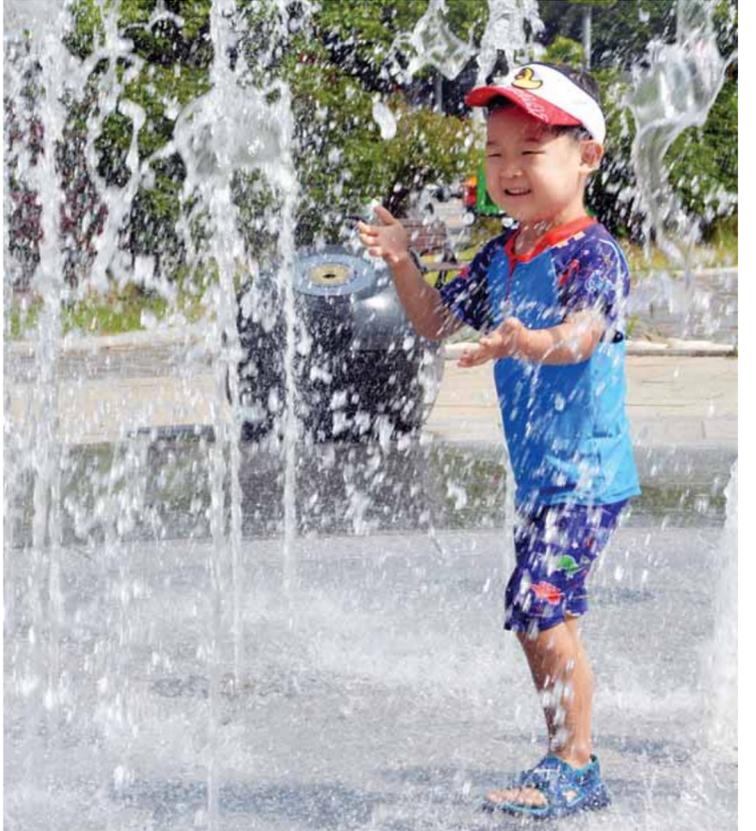
권익위는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국 64개 지점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지역경찰청, 도로관리청 등과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광양 중동 무등파크 정문 앞 횡단보도와 순천 낙안 남내사포정 버스정류장 부근, 광주 광산구 월곡 영천주공 10단지 입구 앞 횡단보도와 서구 세하만 귀정 앞 노상 등 광주·전남 4곳이 개선 대상 지점에 포함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 도로 개선과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문화질서를 지키려는 운전자와 시민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6시로, 하굣길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물놀이 신나요”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4.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경보 이틀째인 26일 오후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가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살인 폭염’...광주·전남 일주일새 2명 숨져

가축피해도 속출...14만8287마리 폐사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무더위 속에 가축들의 폐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와 나주, 화순, 곡성에 폭염 경보가, 그밖에 전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광주와 나주, 무안, 함평, 곡성, 담양에는 지난 20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나주(다도면) 35.2도, 곡성(옥곡면) 35.1도, 화순 34.9도, 광주 34.3도, 구례 34.2도를 기록했다.

일주일째 이어진 집중더위에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14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산동 내동교 인근 평림천에서 폭염을 피해 물놀이하던 김모(13)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3시45분께는 화순군 동명 야산에서 일하던 이모(56)씨가 더위에 쓰러져 숨졌고, 지난 18일 오전에는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서 텃밭을 일구던 임모(여·83)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이 밖에도 지역 곳곳에서 탈진, 어지럼증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보고된 광주·전남지역의 온열질환자는 모두 71명(사망 2명)이다. 전국의 온열질환 사망자는 5명이다.

전남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나주와 영암, 해남 등 10개 시·군 57개 농가에서 닭 14만260마리, 오리 8000마리, 돼지 26마리, 한우 1마리 등 모두 14만8287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노숙인의 벗’ 허상희 원장 별세

광주 첫 무료 급식 시설 ‘사랑의 식당’ 25년간 운영

노숙인의 벗이자 광주 최초의 무료급식시설인 사랑의 식당을 세우고 운영해온 허상희 광주 사랑의 식당 원장이 별세했다. 향년 81세.

26일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새벽 3시20분께 폐기중 증상 악화로 숨을 거뒀다.

일생을 노숙인과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힘쓴 고인은 지난달 12일 급식봉사 중 호흡근관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의료진은 치료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한부 선고를 내리면서 그에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유지를 권했다고 한다. 고인은 그러나 치료비조차 식당운영비로 써야 한다며 지난 6일 사랑의 식당 한쪽에 마련된 거처로 돌아갔고 끝내 영면에 들었다.

고인은 지난 1991년 광주시 남구 사직동에 광주 지역 최초의 무료급식 시설인 사랑의 식당을 열었



다. 그는 매일 같이 찾아드는 노숙인과 결식 노인 등 500여명에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고 지금도 이 식당에는 하루 평균 400~500명이 찾아와 허기를 달래고 있다.

고인은 지난 2011년 11월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측에 자신이 죽더라도 수도회가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하며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을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식당 건물과 부지, 현금과 예금 6억원 가량을 수도회에 기탁해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했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러달라는 고인의 요청에 따라 26일 오전 천주의 성 요한병원 성당에서 조촐한 장례 미사가 열렸고 그의 시신은 화장돼 이날 오후 사랑의 식당 주변에 안장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사랑이가 꿈꾸는 집, 여러분과 함께 짓고 싶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살던 7식구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퇴거 통보
배경조사가 진행되는 청마초 옆의 컨테이너 박스. 이 곳이 바로 사랑이네 집이었다. 배경조기로 인해 하얀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며 호흡기질환을 달고 살던 사랑이네 가족. 생활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엔 곰팡이와 싸우고 겨울엔 추위와 사투를 벌이던 집. 그래도 7남매의 웃음과 행복이 피어났던 집이었었다.

사랑이네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그리고 남 거친 수천만원의 빚, 빚을 갚으려,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 만삭의 몸으로 사랑이 엄마는 아빠와 함께 밤에 나갔었다. 게다가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사랑이의 3도 화상을 입은 막내 3살 마음이의 치료까지 막막할 뿐이었다.

외부에 임시로 판넬을 덧대어 틈새 공간을 마련한 사랑이네 집
우리 어린 가족은 살기 위해, 외삼촌네 집 마당에 임시 판넬로 5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집 마당에 외부와 다를 바 없는 판넬 집은 집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콘크리트 바닥과 배추 튀어나온 빨간 벽돌에 3살 마음이가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동생이 너무나 무 좋아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신 후원금은 사랑이네 주거신속비 및 생계비로 사용되며, 참여해주신 후원자님에 입주금도 초대합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랑이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정신 없는 엄마를 도와줍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척척 빨래를 하고, 식사시간이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척척 놓습니다. 사랑이의 별명은 '신사원장'. 6살이지만 마음은 훌쩍 커버린 아이입니다.

◀후원 및 자세한 사항은 코드를 찍어주세요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농협/301-00816148-1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문의. Tel. 061-274-0041 / 061-921-4397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68년 동안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생존·보호·발달·권리옹호)를 수행 해 온 국내 최대의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

오늘의 날씨		해무 05:38	달맞이꽃 ---:--			
		해짐 19:40	달맞이꽃 13:05			
아침 안개 주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게 끼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5/33	보성	구름많음	24/33	
목포	구름많음	25/32	순천	구름많음	25/33	
여수	구름많음	25/31	영광	구름많음	25/32	
나주	구름많음	24/33	진도	구름많음	24/32	
완도	구름많음	24/32	진주	구름많음	25/32	
구례	구름많음	24/34	군산	차차중려저비	25/31	
강진	구름많음	24/32	남원	구름많음	24/31	
해남	구름많음	24/32	홍산도	구름많음	23/29	
장성	구름많음	23/3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부	면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0			
서부	면바다(동)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남서	1.0~1.5			
		남~남서	1.0~1.5			
◇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매우높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 주간 날씨						
28(목)	29(금)	30(토)	31(일)	8/1(월)	2(화)	3(수)
25/31	25/33	25/33	25/32	24/32	24/32	24/32